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대한 번역 기술 -‘마음 위에 말하다’(על-לב)를 중심으로-

김선종*

1. 서론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일은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청되지만, 위험성 역시 안고 있다. ‘번역자는 반역자다’(traduttore traditore)라는 이탈리아 속담이 지적하듯이, 번역자가 하나의 말이 속한 문화 배경을 무시하고 대응어만을 활용하여 기계적으로 번역할 경우, 반역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는 언어란 그 언어가 속한 문화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일반 문헌을 번역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과 이로 말미암는 번역에 대한 반감은 특별히 종교 경전의 영역에서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 구약성경의 경우 유대인들은 새롭게 도래한 헬레니즘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지만, 나중에 그들은 스스로 칠십인경¹⁾을 폐기한다. 셈족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질적인 언어로 옮길 때 어쩔 수 없이 그 의미가 변질되고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기독교인들이 성경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Sefer Torah I, 8)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²⁾ 문화 배경을 존중하여 본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원문의 구문을 파괴하여 첨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신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다(*t. Meg.* 4.41). 그래서 결국 랍비 유대교는 칠십인경의 번역 모델을 포기하고, 타르굼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모델을 활용한다.³⁾ 성경 번역은 단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현

* 호남신학대학교 전임강사, 구약학.

- 1)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칠십인경’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말해 ‘칠십인역 구약성경’을 의미한다. ‘칠십인역’은 마소라 본문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본을 강조하는 반면, ‘칠십인경’은 이 번역본이 단지 번역본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어를 사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경전으로 사용한 사실을 표현한다. 참조, 김근주 외,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56.
- 2) M. Harl, G. Dorival et O. Munnich,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Ed. du Cerf, 1994²), 122-124.
- 3) 칠십인경이 성경으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 반면, 타르굼은 언제나 히브리 성경에 종속되어 사용되었다. 참조, 김선종, “타르굼 호세아 1장의 번역 기법”, 『성경원문연구』 26

대어로 옮기는 문제를 넘어 고대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알리는 과정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번역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신학화 작업까지 아우른다.

이처럼 성경 번역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덧붙여 번역자들에게 더 큰 고충을 안기는 번역 과제는 성경 언어의 관용어 표현을 번역하는 경우이다. 우리말로 관용어 혹은 관용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를 뜻한다.⁴⁾ 실제로 성경 번역자와 주석가는 히브리 관용어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는 관용어 표현 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여러 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난점을 열거하자면, 우선 히브리 관용어 혹은 관용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문제이다. 과거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언어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의 언어학 및 의미론의 측면에서 어떤 표현을 관용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관용어 표현이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관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과 언어와 문화의 간격에서 기인한다.⁵⁾ 관용어는 생성되고, 입말로 사용되며, 사멸하기도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히브리 관용어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관용어 표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관용어 사전이 없다는 점이다. 바뷔(J.-M. Babut)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138가지의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열거하고 있지만,⁶⁾ 관용어를 정의하는 성경 연구자에 따라 그 목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히브리어 사전 가운데 일부는 관용어 표현이라는 약어(idiom.)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관용어 표현이 뜻하는 바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⁷⁾ 따라서 히브리 관용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저 자신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산발적으로 연구하고 축적해야

(2010), 53-54.

- 4) 참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5) J. C. Lübke, “Idioms in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Semitics* 11 (2002), 45-63.
- 6) J.-M. Babut,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de l'hébreu biblique: Signification et traduction. Un essai d'analyse componentielle*, CahRB 33 (Paris: Gabalda, 1995). 본 논문은 E. Lind가 번역한 영문판을 인용한다. J.-M. Babut,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Hebrew Bible: Their Meaning and Translation Through Componential Analysis*, BIBAL Dissertation Series 5 (North Richland Hills, TX: BIBAL Press, 2003), 38-61.
- 7) 이 문제를 위해서는 J. C. Lübke, “Idioms in the Old Testament”, 53. 현대 히브리어의 관용어 사전을 위해서는 참조, R. Rosenthal, *Dictionary of Hebrew Idioms and Phrases* (Jerusalem: Keter Publishing, 2010) [히브리어].

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다.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관한 연구주제가 안고 있는 흥미로움과 중요성에 비하여, 국내외를 위시한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5년 전 민영진은 성경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역과 의역의 문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히브리어 관용어 번역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은 바 있다.⁸⁾ 외국 학자 가운데 바뵤, 뤼브(J. C. Lübbe), 요스텐(J. Joosten)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들의 연구 역시 제한된 용례만 다루고 있거나(바뵤, 뤼브) 칠십인역 성경의 번역 기술(요스텐)⁹⁾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밝힌 문제제기와 연구 동기에 따라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대한 우리말 번역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방법론적으로 우선 칠십인역 번역자가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번역하기 위해 활용한 기술을 살펴본 뒤, 우리말 성경이 히브리 관용어 표현 ‘마음 위에 말하다’(דַּבֵּר עַל-לֵב)¹⁰⁾를 번역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하나의 논문 안에 130여개에 이르는 관용어 표현을 모두 다루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며, 비록 하나의 예에 불과할지라도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예를 통해 우리말 성경이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옮기는 전형적인 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 기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관용어’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다. 나이다(E. A. Nida)는 의미론적이고 문법적인 구조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낱말들이 조합되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 것을 관용어로 정의한

8)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197: “구약만을 보더라도 자연히 히브리어 관용적 표현들이 그대로 반영된 헤브라이즘을 많이 보게 된다. [...] 우리말 번역에 나타나는 헤브라이즘 연구는 별도로 취급될 만한 분야다”.

9) J. Joosten, “Translating the Untranslatable: Septuagint Renderings of Hebrew Idioms”, R.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5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59-70.

10) 우리말 ‘마음 위에 말하다’는 히브리 관용어 표현의 내심적(endocentric)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번역이다. ‘דַּבֵּר עַל-לֵב’을 ‘마음에 말하다’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히브리어 전치사 ‘알’(עַל)이 ‘-에’(אֶ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후기 히브리어에 이르러서이다. 참조, A. 샌즈-바딜로스, 『히브리어 발달사』, 최명덕, 박미섭 역(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1), 135-138. ‘דַּבֵּר עַל’ 자체는 ‘-에 관하여 말하다’(왕상 2:18), 혹은 ‘-에 거슬러 말하다’(왕하 22:19)라는 의미를 지닌다. 참조, P. Joüon, “Locutions hébraïques avec préposition עַל devant לֵב et לְבַב”, *Bib* 5 (1924), 49-53. 따라서 이 글에서는 ‘דַּבֵּר עַל-לֵב’가 가지고 있는 관용어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마음 위에 말하다’로 옮기도록 한다.

다.11) 비록 개별적인 뜻을 지닌 낱말들이 모여 하나의 표현을 이루지만, 이 관용어 표현은 각각 낱말의 뜻을 합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제3의, 포괄적이며 외심적인(exocentric) 의미를 지니게 된다.12)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관용어 표현은 ‘웃웃이나 윗도리에 입는 겂옷의 앞자락’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 혹은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를 뜻하는 것과 같다.13)

관용어에 대한 각각 다른 정의가 존재하지만, 관용어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14) 이미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본문 안에 빈번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15)에는 이견이 없다. 관용어는 그 표현을 산출한 고유한 문화 배경 아래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에 속한 번역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은 더더욱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관용어가 속한 본래 언어의 형태를 중요시하여 고정번역(stereotyped translation)을 실시할 경우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번역어에서 의역을 시도할 경우 원문이 가지고 있는 구문의 맛을 간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한 원칙을 도출해내기 이전에, 대표적인 고대어 번역 성경인 칠십인경의 번역 기술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최근 요스튼은 “번역불가능한 것을 번역하기: 히브리 관용어에 대한 칠십인경의 번역”이라는 논문에서 고대의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관용어 표현을 그리스어로 옮기는 세 가지 방식을 추출해 내었다.16)

첫째 방식은 형식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고 시도하는 문자역(직역)으로 히브리 관용어 구문을 그리스 대응어를 활용하여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방식이다.17)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칠십인경은 사무엘상 19:5에 나타

11) E. Nida and Ch.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Help for Translators 8 (Leiden: Brill, 1969), 45-46.

12) R. Jacobson, *Selected Writings, Vol. 2: Word and Language* (Paris: Mouton, 1971), 242; E. A. Nida, *Exploring Semantic Structures* (München: Fink, 1975), 126; E. Nida and Ch.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202; J. C. Lübke, “Idioms in the Old Testament”, 45. 내심적 의미와 외심적 의미의 정의를 위해서는 참조, E. Nida and Ch.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202.

13) 참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SectionView.jsp>).

14) E. Dhorme, *L'emploi métaphorique des noms de parties du corps en hébreu et en akkadien* (Paris: V. Lecoffre, 1923), 61.

15) A.-J. Greimas, “Idiotismes, Proverbes, Dictions”, *Cahiers de lexicologie* 2 (1960), 54.

16) J. Joosten, “Translating the Untranslatable”, 62-66.

17) 이 글이 예로 삼은 ‘마음 위에 말하다’에 대한 칠십인경의 경우가 그렇다. 이 글은 편의상 ‘형식의 일치’, ‘내용의 동등성’, ‘직역’, ‘의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현대 번역 이론에

나는 히브리 관용구 ‘그리고 그가 그의 생명을 그의 손에 놓았다’ (כִּכְפוֹ יָשְׁבִיטֵהוּ אֶמְשֵׁי)를 기계적으로 번역(καὶ ἔθετο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ἐν τῇ χειρὶ αὐτοῦ)하고 있지만, 당시 그리스어 독자들이 이러한 그리스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¹⁸⁾ 이는 헤브라이즘의 대표적인 경우로 그리스어 독자들이 마소라 대본을 알지 못할 때, 번역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이해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삼상 19:5상

for he did *put his life in his hand*, and slew the Philistine (KJV)¹⁹⁾

יְהַשְׁבִּיטֵהוּ אֶמְשֵׁי כִּכְפוֹ יָשְׁבִיטֵהוּ אֶמְשֵׁי

καὶ ἔθετο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ἐν τῇ χειρὶ αὐτοῦ

καὶ ἐπάταξεν τὸν ἀλλόφυλον

And he *put his life in his hand*, and smote the Philistine (Brenton)

둘째는 내용의 동등성을 중요시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번역(의역)하는 방식으로 히브리 구문에 구애 받지 않고, 원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칠십인경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히브리 관용어 표현 ‘아무개의 얼굴을 간청하다’²⁰⁾를 단 하나의 동사 ἐξιλάσκομαι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옮기고 있지만, 본래의 히브리 구문을 파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숙 7:2하

to *entreat the favor* of the Lord (KJV)

לְהַלְבֵּשׁ אֶת־פְּנֵי יְהוָה

ἐξιλάσασθαι τὸν κύριον

to *propitiate* the Lord (Brenton)

마지막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번역 기술로서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동시에 대응어를 첨가하는 방식이다.

서 이러한 일치, 혹은 등가의 차원은 매우 다양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참조, 광성희, “현대 번역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160-161.

18) 이 표현을 『개역』과 『개역개정』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로, 『표준』은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로, 『공동』은 ‘그는 목숨을 걸고’로 번역함으로써 직역을 피한다.

19) 영어 번역은 가능한 한 히브리 본문을 직역한 KJV를 소개한다.

20) 『개역』, 『개역개정』은 ‘은혜를 구하다’, 『표준』은 ‘은혜를 간구하다’, 『공동』은 ‘자비를 빌다’로 번역한다. 같은 표현이 삿 12:3; 삼상 28:21; 욥 13:14 등에도 나타난다.

창 19:21

And he said unto him, See, *I have accepted thee concerning this thing also* (KJV)

וַיֹּאמֶר אֱלֹהֵי הַגֹּיִם נִשְׁאַרְתִּי פָנַי גַּם לְדַבֵּר הַזֶּה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ἰδοὺ ἐθαύμασά σου τὸ πρόσωπον καὶ ἐπὶ τῷ ῥήματι τούτῳ

And he said to him, Behold, *I have had respect to thee also about this thing* (Brenton)

위의 칠십인경 본문에서 그리스어 동사 ‘타우마조’(θαυμάζω)가 이미 ‘존경하다’, ‘놀라다’의 뜻을 지니고 있어, 히브리 관용어 표현 ‘아무개의 얼굴을 듣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어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 ‘나사’(נָסָא)가 가지고 있는 ‘울리다’가 ‘얼굴’(פָּנָה)과 결합하여 산출한 ‘존경하다’의 의미를 적절하게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또다시 히브리어 ‘파네’(얼굴)에 해당하는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을 첨가함으로써 본래의 히브리 구문을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중번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스튼은 이러한 세 가지 번역 기술이 히브리 원문과 번역어 사이에 존재하는 문법의 간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만일 히브리 관용어 표현이 문자적으로 번역되어도 당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경우 형식 일치의 번역이 가능하다(삼상 18:26). 그러나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직역하여 그리스 문법에 어긋나는 낯선 표현이 도출될 때에 독자들은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출 35:21). 그렇기 때문에 직역하면 그리스 문법에 전혀 맞지 않아 우스꽝스런 번역문을 산출할 때에는, 내용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번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창 30:2; 레 21:10; 왕상 9:12). 이처럼 대부분의 칠십인경 번역자는 일반적으로 직역과 의역 가운데 한 가지의 번역 방식을 결정해야 했지만, 기계적인 번역을 통하여 적합한 번역 구문을 산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더 나아가 히브리어 구문의 형식과 의미 모두 존중하여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도 그리스 문법에 큰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두 방식의 혼합형 역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창 39:19; 출 29:35; 사 14:3; 삼상 4:20; 렘 7:31; 숙 8:22).²¹⁾

이러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볼 때, 오늘날 칠십인경을 읽는 독자들은, 마소라 본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받아들인 성경 본문을 가능한 한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고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

21) J. Joosten, “Translating the Untranslatable”, 66-68.

경은 이와 같은 히브리 구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히브리 관용어를 번역하는 일관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 검토할 지점에 이르렀다.

3. ‘마음 위에 말하다’(על-לב)에 대한 우리말 번역

히브리 성경에는 마음(לב)²²⁾과 관련된 몇 가지 히브리 관용어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마음 위에 말하다(על-לב)’, ‘마음 위에 놓다(שים על-לב)’²³⁾, ‘-에/위에 마음을 놓다(על/אל)’, ‘마음을 빼앗다(בגג לב)’²⁵⁾, ‘마음이 높다(לבב)’, ‘마음을 들다(נשא לב)’²⁷⁾ 등이다.

3.1. 관용어 표현이 속한 문맥에 대한 이해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 총 10회 나타나는데(창 34:3; 50:21; 사 19:3; 삼상 1:13; 삼하 19:8[한글 7]; 사 40:2; 호 2:16[한글 14]; 룻 2:13; 대하 30:22; 32:6), 사무엘상 1:13만 제외하고 모두 말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 위에 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무엘상 1:13은 한나가 자신의 마음 위에 말하는 것으로, 문맥상 기도하는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²⁸⁾ 본 연구에서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9개의 용례가 나타나는 문맥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34:1-33에서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 ‘그 소녀의 마음 위에 말한다.’ 창세기 50:15-21에서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와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차례 말한 뒤(19, 21절),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한다.’ 사사기 19:1-3에서 어느 레위 사

22) 우리말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브’ 혹은 ‘레바브’는 사람의 구체적인 신체 기관과 더불어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지만, 본 논문은 우리말 번역 기술에 관심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마음’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내용을 위해서는, H. W. 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82-116을 참조할 수 있다.

23) 출 9:21; 신 32:46; 사 42:25; 57:1; 렘 12:11; 말 2:2 등.

24) 삼상 4:20.

25) 창 31:20; 삼하 15:6.

26) 신 8:14; 17:20; 겔 31:10; 호 13:6; 단 11:12. 참조, לבב, 고: 대하 26:16; 32:25, 26.

27) 왕하 14:10. 기타 ‘마음’과 관련된 관용어 표현은 삼상 9:20; 21:13; 삼하 13:20; 전 7:2; 단 10:12 등에 나타난다.

28)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개역』, 『개역개정』), ‘한나가 마음 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표준』, 『새번역』),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공동』, 『공동개정』).

람의 첩이 집을 나가자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 그 여자 혹은 그 여자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לְהַשִּׁיבוּ, לְהַשִּׁיבָה)²⁹⁾ ‘그 여자의 마음 위에 말한다.’ 사무엘 하 19:1-8에서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나아가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의 종들의 마음 위에 말’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야 40:1-2에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마음 위에 말하라’고 명령하신다. 호세아 2:16(한글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후, ‘그의 마음 위에 말씀하신다.’ 룻기 2:8-13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은 ‘당신이 당신의 여종의 마음 위에 말한다’고 표현한다. 역대하 30:13-22에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므로 종교 개혁에 가담한 ‘모든 레위인들의 마음 위에 말한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32:1-6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앗수르 앞에서 나라를 호위하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히스기야는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한다.’

3.2. 우리말 번역에 대한 관찰

비록 오늘날 독자들이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관용어 표현을 그 표현이 나타나는 문맥 가운데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명백백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번역자의 직관을 신뢰하여 문맥에 따라 그 흐름을 추정하여 이해할 경우, 오역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다양한 문맥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관용어 표현 ‘마음 위에 말하다’를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³⁰⁾

창 34:3 וַיְדַבֵּר עַל-לֵב הַנַּעֲרָה καὶ ἐλάλησεν κατὰ τὴν διάνοιαν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개역』, 『개역개정』)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표준』, 『새번역』)
디나에게 애타게 애정을 호소하였다(『공동』, 『공동개정』)

창 50:21 וַיְדַבֵּר עַל-לִבָּם καὶ ἐλάλησεν αὐτῶν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개역』,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공동』, 『공동개정』)

삿 19:3 לְדַבֵּר עַל-לִבָּהּ τοῦ λαλῆσαι ἐπὶ καρδίαν αὐτῆς

29) 이 구문에 나타나는 케티브와 케레의 문제를 위해서는 주석을 참고하라.

30) 다양하게 제시된 영어, 독일어, 불어 번역을 위해서는 참조, J.-M. Babut,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Hebrew Bible*, 76-80.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이 직역에 가장 가깝다.

먼저 사무엘하 19:8에서 『개역개정』을 볼 때,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번역하여 ‘위로하다’라는 의역에 ‘마음’과 ‘말씀하다’를 첨가하였는데, 이는 직역과 의역의 혼합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위로하여’를 작은 글씨체로 나타내어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표현임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만일 이 번역을 ‘마음을 말씀하옵소서’로 여긴다면, 히브리 관용어 표현의 구문을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사야 40:2에 대한 『개역개정』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라고 옮김으로써, ‘마음 위에 말하다’에 대한 직역에 가깝다.

그러나 사무엘하 19장의 우리말 성경의 경우처럼 ‘마음 위에 말하다’에서 ‘말하다’를 직역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8절(한글 7절)에서 요압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의 마음 위에 말해 달라고 요구한다. 비록 9절(한글 8절)에서 다윗은 요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성문에 앉아 부하들 앞에 모습을 드러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 이 사실은 히브리 관용어 ‘마음 위에 말하다’가 실제로 말을 한다고 하는 내심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³¹⁾

3.2.2. 의역

사무엘하 19:8과 이사야 40:2에 대해 『개역개정』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시도한 것을 통해 독자들은 번역 성경 배후에 히브리어의 관용어 표현이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말씀하옵소서’나 ‘마음에 닿도록 말하다’라는 번역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번역이 원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우리말 성경은 ‘마음 위에 말하다’를 ‘위로하다’(룻 2:13에 대한 『표준』, 『새번역』; 대하 30:22에 대한 『개역』, 『개역개정』), ‘달래다’(삿 19:3에 대한 『공동』), ‘격려하다’(사 40:2에 대한 『표준』, 『새번역』; 대하 30:22에 대한 『표준』, 『새번역』; 대하 32:6에 대한 『표준』,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 ‘사랑을 속삭이다’(호 2:16에 대한 『공동』, 『공동개정』), ‘칭찬하다’(대하 30:22에 대한 『공동』)로 의역한다.³²⁾

얼핏 보기에 우리말 성경이 ‘마음 위에 말하다’라고 직역함으로써 관용어 표현을 애매하게 옮기지 않고, 위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의역하여 독자들의

31) J.-M. Babut,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Hebrew Bible*, 75.

32) 이와 같은 의역을 위해서는 참조, G. Fischer, “Die Redewendung עֲלֵ-לֵב im AT.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von Jes 40,2”, *Bib* 65 (1984), 244-250.

이해를 도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처럼 직역을 피하고 의역한 우리말 성경의 시도가 고대 칠십인경의 번역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두 번역 사이에 존재하는 번역 기술의 차이와 간격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칠십인경의 경우 창세기 34:3만 예외(καὶ ἐλάλησεν κατὰ τὴν διάνοιαν)로, 한결같이 ‘λαλέω ἐπί/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마음 위에/마음에 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와 그리스 단어의 1대 1 대응 방식의 문자역 양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칠십인경의 번역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당시 번역자들이 ‘마음 위에 말하다’라고 일관되게 옮김으로써 그리스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바르게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히브리 관용어를 그리스어로 자구적으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어 문체에 도 낮설지 않아 당시 독자들이 그 뜻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음을 증명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우리말 성경이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관용어 표현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의역한 사실은 이러한 번역의 옳고 그름을 떠나, 히브리 관용어를 문맥에 따라 바르게 이해했다는 확신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마소라 본문을 그리스어로 옮긴 칠십인경 번역자들이 이러한 관용어를 매우 기계적으로 한결같이 번역한 사실은 그들 자신이 히브리 관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³⁴⁾ 만일 칠십인경 번역자가 ‘마음 위에 말하다’를 ‘위로하다’로 이해했을 경우, 창세기 50:21에 사용된 그리스어 παρακαλέω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³⁵⁾

이러한 가설은 칠십인경보다 더 후대에 기록된 타르굼 역시 같은 셈어 계통에 속하는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몇 가지 단어들을 첨가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타르굼 창세기 24:3, 창세기 50:21, 호세아 2:16, 룻기 2:13에는 타르굼 아람어 ܒܘܕܪܝܢ(부드러운 말들) 혹은 ܘܪܘܗܘܬܐ(위로들)³⁶⁾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히브리 관

33) 칠십인경이 각 책마다 마소라 본문을 직역 혹은 의역의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한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칠십인경 오경은 마소라 본문을 직역하고 있으며, 예언서와 성문서의 많은 책들은 마소라 본문을 자유롭게 번역한다. 이를 위해서는 K. H. Jobes and M.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2000), 114 등의 칠십인경 개론서를 참조할 수 있다.

34) J.-M. Babut,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Hebrew Bible*, 96. 다른 경우의 예를 위해서는 참조, J. C. Lübbe, “Idioms in the Old Testament”, 60;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64.

35) T. Muraoka,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8), 95.

36) R. Le Déaut, “Le thème de la circoncision du cœur (Dt 30,6; Jr 4,4) dans les versions anciennes (LXX et Tg) et à Qumrân”, J. Emerton, ed., *Congress Volume: Vienna 1980 (IOSOT)*, VTS 32

용어 표현을 타르굼 아람어로 기계적으로 번역했을 경우,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이 그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기에 불충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는 칠십인경 독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칠십인경 사 19:3; 사 40:2). 이는 칠십인경과 타르굼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미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히브리 관용어가 관용어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드러낸다.³⁷⁾

3.2.3. 직역과 의역의 혼합

이처럼 사무엘하 19:8과 이사야 40:2에 대한 『개역개정』은 직역에 가깝고, 많은 우리말 성경이 ‘마음 위에 말하다’를 ‘위로하다’, ‘달래다’ 등으로 의역한다면, 의역과 직역을 혼합한 번역 기술을 시도한 것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4:3에서 『개역』과 『개역개정』은 ‘마음 위에 말하다’를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로 옮긴다. 이에 대한 의역은 ‘위로하다’로 충분하다. 그러나 번역자는 ‘위로하다’라는 의역에 ‘마음’과 ‘말’을 첨가한다. 창세기 50:21 역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로 충분하지만, 『개역』,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은 ‘간곡한 말’을 첨가한다. 위의 3.2.2.에 나타난 의역의 경우 ‘위로하다’가 단지 문맥의 흐름에 따라 선택된 것과 달리, 창세기 50:21 하반절과 룿기 2:13에서 ‘마음 위에 말하다’를 ‘위로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같은 구절에 ‘위로하다’를 뜻하는 히브리 동사 니함(נח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참조, 사 40:1-2).³⁸⁾

창 50:21하

וַיִּנְחֵם אוֹתָם וַיְדַבֵּר עַל-לִבָּם:

καὶ παρεκάλεσεν αὐτοὺς καὶ ἐλάλησεν αὐτῶν εἰς τὴν καρδίαν

또한 사사기 19:3에서도 『공동』과 『공동개정』에서처럼 ‘남편은 그를 찾아가 달래어’로 충분하지만, 『표준』과 『새번역』은 ‘마음’을 첨가함으로써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로 번역한다.

이처럼 의역에 히브리어 단어를 첨가한 혼합형 방식의 번역 기술은 사무엘하 19:8에 대한 『개역』, 『표준』, 『공동』, 이사야 40:2에 대한 『개역』, 『공동』, 『공동개정』, 호세아 2:16에 대한 『개역』,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 룿기 2:13에 대한 『개역』, 『개역개정』, 『공동』, 『공동개정』, 역대하 32:6에 대한 『개

(Leiden: Brill, 1981), 178-205.

37) J.-M. Babut,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Hebrew Bible*, 96-98.

38) 참조, E. F. Campbell, Jr., *Rut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7 (New York: Doubleday, 1975), 100-101.

역』, 『개역개정』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번역자가 직역과 의역을 혼합한 배 후에는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히브리 관용어 표현이 단지 외심적인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히브리어 ‘마음’이 감정 혹은 논리를 산출하는 자리³⁹⁾로서 지니고 있는 내심적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⁰⁾ 또한 ‘말하다’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히브리어 동사(דבר)에 ‘위로하다’ 등의 다른 우리말 동사를 첨가함으로써, 직역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의미 전달을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3.2.4. 관용어 표현의 소멸(대하 30:22; 32: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언어와 마찬가지로 관용어 표현 역시 생성하고 소멸한다. 이는 곧 관용어 표현이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거나, 이전에 지니고 있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용어 표현이 겪는 생성과 소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속한 본문과 책의 연대를 연구해야 한다. 구약성경의 복잡한 역사비평 논쟁이 있지만, 다행히 이 부분이 다루려고 하는 9개의 본문 가운데 역대하 본문 두 개는 후기 히브리어(LBH)에 속하고 나머지 7개의 본문은 고전 성서 히브리어(CBL)에 속한다.⁴¹⁾

이 지점에서 ‘마음 위에 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관용어 표현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데, 역대하 30:22과 32:6에 나타나는 관용어 표현은 다른 본문에서와 다르게 이해하여 번역해야 한다. 먼저 성경 히브리어 시대에 기록된 7개의 관용어 표현 ‘마음 위에 말하다’는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²⁾ 먼저 이들은 화자와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 사이의 내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둘째로,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사이에는 계급 혹은 신분의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의 마음 위에 말을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존재하는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여 원상복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3.1.의 ‘관용어 표현이 속한 문맥에 대한 이해’의 단락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세겔과 디나, 요셉과 형제들, 레위인과 첩, 다윗과 부하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보아스와 룻의 경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하 30:22과 32:6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과 레위인들 및 군대

39) H. W. 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 89-102.

40) P. Trib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1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67.

41) 오경에 속한 본문과 룻기가 기록된 연대에 관한 논쟁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논쟁이 되는 본문들의 기록이 늦을지라도 그 배경 역시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라고 보기 힘들고, 관용어 표현 역시 고전 히브리어 시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42) J.-M. Babut,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Hebrew Bible*, 89-90.

지휘관들 사이에는 비록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들 사이의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 위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⁴³⁾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에 참여한 레위인들 및 앓수르에 대항한 자신의 부하들과 깨어진 관계 아래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협조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한다고 할 때, 그들을 위로(『개역』, 『개역개정』)하거나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로 칭찬(대하 30:22의 『공동』)하고 격려(대하 30:22의 『표준』, 『새번역』과 대하 32:6의 『표준』,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⁴⁴⁾ 이러한 점에서 역대기 역사서가 기록된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히브리 관용어 표현이 그 표현의 가치를 상실하고 내심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위의 각주 10에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 전치사 ‘알’(ל)이 아람어의 영향으로 ‘-위의’라는 뜻과 더불어 ‘-에’(ל)라고 하는 평범한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번역할 경우, 직역, 의역, 이들을 혼합한 방식의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단지 칠십인경을 번역한 번역자의 번역 기술일 뿐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 채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의 번역본에서 형식을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번역 기술과 내용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번역 기술 가운데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하여 활용되지 않고, 이들이 함께 나타나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결국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직역이 옳은가, 의역이 옳은가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한다. 성경을 읽는 독자와 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번역본을 산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히브리 관용어 표현을 현대어로 기계적으로 번역할 경우 그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지 못할 것임은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그대로 보여준다. 히브리 관용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맛을 가능한 한 드러내기 위해서는, 번역어에서 적절한 관용어 표현을 찾아 대응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럴 때에 독자들은 번역어의 관용어 표현 배후에 있는 원문을 상상하며 성경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43) Ibid., 94.

44) Ibid., 96.

관용어 표현을 비롯한 성경 언어 역시 시대에 따라 생성 소멸하는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마땅하다. 논의의 범위를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제한할 때, 이러한 연구는 성경 언어학, 본문의 연대를 가늠하는 역사비평학, 구약 주변세계의 언어와 비교연구, 또한 우리말 연구를 통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을 준비하는 성경 번역자들은 이러한 과중한 연구에 움츠리지 않고,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관용어 표현들을 만날 때마다 그저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을 통한 축적물을 쌓도록 노력할 따름이다.

<주요어>(Keywords)

관용어 표현, 번역 기술, 칠십인경, 타르굼, 우리말 번역, 마음 위에 말하다.
idiomatic expressions, translation technique, Septuagint, Targum, Korean translation, to speak-on-the-heart.

(투고 일자: 2012. 1. 25, 심사 일자: 2012. 2. 24, 게재 확정 일자: 2012. 3. 16.)

<참고문헌>(References)

- 곽성희, “현대 번역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157-179.
- 김근주 외,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
- 김선중, “타르곳 호세아 1장의 번역 기법”, 「성경원문연구」 26 (2010), 53-70.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볼프, H. W.,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 샌즈-바달로스, A., 『히브리어 발달사』, 최명덕, 박미섭 역,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1.
-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62-78.
- Babut, J.-M.,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Hebrew Bible: Their Meaning and Translation Through Componential Analysis*, BIBAL Dissertation Series 5, E. Lind, trans., North Richland Hills, TX: BIBAL Press, 2003.
- Campbell, Jr., E. F., *Rut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7, New York: Doubleday, 1975.
- Dhorme, E., *L'emploi métaphorique des noms de parties du corps en hébreu et en akkadien*, Paris: V. Lecoffre, 1923.
- Fischer, G., “Die Redewendung דבר על לב im AT.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von Jes 40,2”, *Bib* 65 (1984), 244-250.
- Greimas, A.-J., “Idiotismes, Proverbes, Dictions”, *Cahiers de lexicologie* 2 (1960), 41-61.
- Harl, M., Dorival G., et Munnich, O.,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Ed. du Cerf, 1994².
- Jacobson, R., *Selected Writings, Vol. 2: Word and Language*, Paris: Mouton, 1971.
- Jobes K. H., and Silva, M.,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2000.
- Joosten, J., “Translating the Untranslatable: Septuagint Renderings of Hebrew Idioms”, R.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5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59-70.
- Joüon, P., “Locutions hébraïques avec préposition על devant לב et ללב”, *Bib* 5 (1924), 49-53.
- Le Déaut, R., “Le thème de la circoncision du cœur (Dt 30,6; Jr 4,4) dans les versions anciennes (LXX et Tg) et à Qumrân”, J. Emerton, ed., *Congress Volume: Vienna 1980 (IOSOT)*, VTS 32, Leiden: Brill, 1981, 178-205.

- Lübbe, J. C., "Idioms in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Semitics* 11 (2002), 45-63.
- Muraoka, T.,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8.
- Nida, E. A., *Exploring Semantic Structures*, München: Fink, 1975.
- Nida E. A., and Taber, Ch.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Help for Translators 8, Leiden: Brill, 1982.
- Rosenthal, R., *Dictionary of Hebrew Idioms and Phrases*, Jerusalem: Keter Publishing, 2010(히브리어).
- Trible, P.,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1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Abstract>

**The Technique of Translating Hebrew Idiomatic Expressions:
The Case of ‘to Speak on the Heart’ (דבר על-לב)**

Prof.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Among a lot of problems of the Bible translation,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render the idiomatic expressions found in the Hebrew Bible into the modern language. An idiom signifies a sequence of words that form an exocentric meaning. The difficulties of the translation come from the gap between the time when the expressions were used and that of the readers and from the choice of a good corresponding idiom in the target language.

When we limit the case of the idiomatic expression ‘to speak on the heart’ (דבר על-לב)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s, it is very rare to find its literal renderings. Most Korean versions translate it freely, or add a corresponding word to a free translated text in order to reveal the biblical meaning in the context that this expression belongs to. These translation tendencies are already found in the Septuagint and the Targum. The literal rendering makes the modern reader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original text well. On the other hand, the readers may lose the good taste found in the original structures of the Hebrew Bible. The Bible translators usually undergo these problems in rendering the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Bible.

In that the translation does not simply render one language into another but leads the biblical readers to the message of the Living God, we can be satisfied only when the original structures of the original text are preserved well in the target text as well as its original meaning is conveyed rightly.